



폭설이 내린 8일 제주도 연동에서 행인이 눈보라를 맞으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사진 왼쪽). 대설경보가 내려진 8일 제주 시내에서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에 최강 한파... 항공편 결항·교통사고 속출

도 전역 폭설·강풍 동반 한파... 산지 등에 대설주의보
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4시간가량 활주로 임시 폐쇄
항공편 166편 무더기 결항... 교통·낙상사고도 잇따라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도 전역에 몰아치면서 공항 활주로를 임시 폐쇄되고,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다.

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오후 3시 기준 주요 지점 신적설 현황은 한라산 어리목 20.3cm, 사제비 16.8cm, 삼각봉 15.3cm, 한남 9.4cm, 제주가시리 9.0cm, 산천단 8.5cm, 송당 8.5cm, 와산 6.4cm, 표선 5.9cm, 성산 5.2cm, 제주남원 4.8cm, 성산수산 4.4cm, 강정 2.4cm, 제주 2.0cm 등이다.

예상 적설량은 이날 늦은 밤까지 제주도산지 2~7cm, 제주도 중산간 1~5cm, 제주도해안 1cm 안팎이다.

도로 통제도 이어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100도로, 5·16도로, 비자림로, 명림로는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제2산록도로 (소형)와 침단로에서는 월동 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다.

폭설로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이 다수가 결항 또는 지연되면서 혼잡이 빚어졌다.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과 임시 거처라도 마련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승객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국내선 항공편 166편 (도착 88·출발 78)이 결항됐고 국제선 (도착) 5편이 회항했다. 또 국내선 64편 (도착 35·출발 29), 국제선 27편 (도착 13·출발 14)이

지연 운항됐다.

또 공항 활주로에 눈이 쌓이면서 제설 작업을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가량 활주로가 임시 폐쇄됐다.

이날 제주공항에서 만난 유모 (50대)·김모 (20대)씨는 “내일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데 항공편이 결항돼서 아침 7시부터 공항에 도착해 항공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서 예약한 항공편이 취소돼서 새로 예약을 했는데 그것마저 결항돼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눈길 교통사고와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수십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33건의 기상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1시 15분쯤 제주도 한림읍에서는 눈길에 차량 11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후 1시 5분쯤 새

별오름 인근 평화로에서 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탑승한 성인 1명과 소아 2명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이날 새벽 4시 39분쯤 제주도 삼도2동, 오전 7시 46분쯤 제주도 애월읍, 오후 1시 4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도 차량사고가 잇따랐다.

방판길 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르면서 2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풍에 지붕 판별이 추락하거나 안내표지판 기둥이 흔들리는 등 피해가 발생해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 아침까지 기온이 0℃ 안팎으로 낮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며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잘 확인하고,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성산 해역서 어선 좌초... 승선원 10명 전원 구조

서귀포시 성산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했으나, 승선원 10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지난 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2분쯤 성산을 신포구 북동쪽 600m 해상에서 어선 A호 (29t급·승선원 10명)가 좌초됐

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사고 어선이 좌현으로 10도가량 기울어진 것을 확인하고, 선체가 가라앉지 않도록 리프트백을 설치했다. 이후 해당 선박은 인근 해역으로 옮겨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어선사고 대비 ‘선저 절단 표식’ 시범사업

제주시, 20척 대상... 선원실 고립 선원 신속 구조

제주시는 어선사고에 대비해 ‘선저 절단 표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어선사고 때 선저에 위치한 선원실에 고립된 선원을 신속 구조하기 위해 구조 진입 지점을 사전에 표시하는 ‘어선 선저절단 표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소재 조선소 업체 가운데 선저 절단 표식 설치가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표식 대상은 제주도 선적 어선 중 선원실이 선저에 위치하고, 선저 절단 표식 설치에 동의한 어선이다.

시는 요건을 충족하는 어선 약

20척을 선정해 선저 절단 표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표식에 필요한 선박 페인트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상사고 발생 때 구조대가 절단 위치를 신속히 인지해 구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구조 지연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와 표식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어선 안전대책으로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점검을”

제주소방, 소화기·감지기 설치·작동 여부 점검 당부

24시간 특별경계근무도 유지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음식 조리과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연휴 전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치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8일 당부했다.

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이다.

이 가운데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842건 (31.3%)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하면서 주택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중요성이 강조된다.

화재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 및 전기·가스기기 사용 등의 부주의가

1518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설 연휴 전후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강화 ▷화재 취약 주거시설 예방 순찰 강화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24시간 특별경계근무 체계 운영 등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전기·가스기기 사용 후 전원 및 밸브 차단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외출 전 가스·전기 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 화재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제주 출항 목포행 선박 적재 차량에서 불

선원 4명 연기 흡입·이송

제주에서 목포로 가던 화물선 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4분쯤 제주

항 북쪽 약 17km 해상에서 화물선 A호 (9952t) 내 화물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제주에서 출항해 목포로 향하는 선박으로 확인됐다.

A호는 화재가 발생하자 자체 진압을 하며 제주항으로 방향을 바꿨다. 오후 6시 25분쯤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에는 승선원 28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화물차 86대와 승용차 41대 등 차량 127대가 적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오후 7시 16분쯤 완전히 꺼졌다.

양유리기자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그랜드
보청기



‘2026년 병오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송돌 훈저 전화 주심서! 기다렸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이소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마일
서사라 사거리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맏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자회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